

거문도 '거문마을' 일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으로

지정 예고... 5월 중 최종 등록
해양 도시 근대생활사 등 간직
섬의 역사자원 활용 가치 증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거문도의 '거문마을' 일원이 11일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 으로 등록 예고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등록 예고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은 삼산면 거문리 35 외 104필지 (2만6610㎡)로, 거문도 사건 등 여수지역 해양 도시 근대생활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또 영국군이 머물렀던 거문도 내항, 근·현대기 상가주택, 영국군이 개발한 큰샘, 근대 의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구 삼산면 의사당 등 그 당시의 마을 평면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역사·문화·생활·건축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거문도 사건 당시 거문도에서 중국 상해까지 연결한 통신케이블인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과 1959년 준공되어 현재 삼산면 의회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은 초창기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록 예고된 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거문도의 '거문마을' 일원이 11일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 으로 등록 예고됐다. 거문도 내항의 모습.

여수시 제공

앞서 여수시는 2022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 선정, 문화재 등록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으며 최종 등록 후 문화재 보수정비,

교육·전시·체험 공간 조성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거문리 일원이 근

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역사·문화·관광이 함께하는 명소로 조성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2026여

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섬 문화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서 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올 첫 '여수 벼룩시장'서 나눔가치 확산

거북선 잔디광장서 467명 참여
1700여 개 거래... 체험 행사도

올해 첫 '여수 벼룩시장'에서 1700여 개의 중고품이 거래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여수 벼룩시장에 187개 팀(46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중고거래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캘리그래피·재활용품 키트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즐기며, 가족 단위 방문객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판매 후 남은 물품과 수익금 기부를 통해 '여수 벼룩시장'이 더욱 뜻깊고

따뜻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벼룩시장이 단순히 중고품이 거래되는 장터가 아니라 이웃 간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남은 5회의 벼룩시장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벼룩시장'은 7, 8월 휴식기를 제외한 11월까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오는 5월은 '제102회 여수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로 두 번째 토요일인 5월11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올해 첫 '여수 벼룩시장'이 지난 6일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여수시 제공

제7기 시민감사관 40명 위촉... 분야별 전문가 등 구성

여수시가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7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제7기 여수시 시민감사' 관은 건축·토목·산업안전·환경·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과 읍면동 대표 시민감사관 27명을 포함해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읍면동 종합감사, 민관합동 기동감찰 등에 참여해 △시민불편사항 발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제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개선 건의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보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규로 위촉된 한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으로서 기술 및 전문 분야와 관련된 자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발한 제보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불편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지원 대상 ↑

지역 내 무주택 청년 누구나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여수시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 요건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거주요건 폐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니 기간 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라며, 나은 주거환경에서 학업과 취업에 매진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1차, 2차 사업을 통해 지난 3월 기준 3486명에게 7억9571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헛차가 남은 청년에게 매월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